

복현1동

사람들의 소중한 소식함

도시 재생 소식지

『복현유사』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우수상 수상

마을기억 사진전 : 만다꼬 문을 찍노 展

위험한 학교 앞, 경진초 네거리

코로나19 피란민촌 응원 프로젝트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복현1동 주민협의체 마을기자단

발행인 주민협의체 대표 강순덕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9길 13 2층

전 화 053-939-3550

디자인 디자인농익다

옛날 배자뭇에
살던 도깨비들

복현1동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청년들이 기록하는 복현유사 프로젝트.
서성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김민국 청년편찬자가 각색한
'사내와 복현도깨비'에 나오는 삽화이다. 복현유사는 국토교통부
에서 지정한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에 선정되어 사례집에
소개되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2020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사업화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본 소식지는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의해 제작 지원되었습니다



2019 복현유사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한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에 선정되어 사례집에 소개되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 2020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사업화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삶을 일궈온 소중한 기억을 나눠주시는 복현1동의 주민 구술자, 그들을 인터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각색한 청년 편찬자가 함께한 복현유사.

북현1동의 저물어가는 것을 반짝거리게 하는 기록, 복현의 삶을 편찬한 『2019 복현유사』 5편의 이야기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지 잠시 살펴보실까요?

제비 이야기

김현진

아침, 그때는 마을 전체에 집이 많이 없고 빈터가 많았대요.
골목골목 가득한 건물들만 봐온 나로서는 잘 상상이 잘 안가지만, 붉고 넓은 바위가 곳곳에 많이 있었답니다. 층이 지고 퍼석한 가로줄 무늬가 있는 큰 바위였는데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면서 모두 깎여나갔을 거예요.
나지막한 언덕은 학교로 가는 오르막 길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까만 시멘트를 걷어내면 붉은 바위를 볼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때의 복현마을 모습이 궁금해요.

복현암이 남긴 선물

이예지

정신이 번쩍 든 남자는 비켜주려 하지만 골목이 워낙 좁아 한 명이 지나갈 자리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남자는 골목 끝까지 앞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욱 걸어가자 동 지게관은 갈림길로 사라지고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퍼져온다.
지금의 장미공원이 있는 자리에 아무렇게나 덩굴진 장미들이 그득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금은 사라진 나지막한 산과 배자뭇까지 한 눈에 보인다.

사내와 복현도깨비

김민국

사내는 뒷도리를 입는 동 마는 동, 신을 신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꼬마와 허겁지겁 뭇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락부락하게 생긴 도깨비 놈들이 동네 아가씨를 업고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불길을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벌써 부리나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도깨비 놈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게 즐거운 모양인지 노래를 부르며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자뭇과 행복현동

윤석환

그러나 옥의 피에 속은 불행은 물에 발을 내딛자마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지치지 않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못에 빠져 죽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불행이 옥에게 패배한 못'이라는 뜻에서 이 못을 패자뭇이라고 불렀다. 패자뭇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자뭇'이 됐다.
배자뭇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 복현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고, 복현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고 싶을 때 찾는 장소가 됐으며 복현사람들은 배자뭇을 통해 행복을 느꼈다.

가람전

박규훈

이후, 또 몇 년이 지났다.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이란 것을 실시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피난민과 수재민들이 모여 살던 복현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배자 뭇 동 마을의 뭇 들을 메우고 산을 깎고 묘와 밭 등을 없애 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수많은 묘들 중에서 언고자가 있어 이장 할 묘는 신속하게 이장해 달라고 한다. 그렇지만 아라의 묘를 마땅히 이장할 만한 곳도, 여유도 없었던 가람은 결국 영원히 잊히지 않을 자진위 기금 한쪽에 아라를 이장하기로 하였다.

들생선치



2020년 대한민국 도시재생뉴딜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구 북구청 『우수상』 수상

복현유사

伏賢遺事

프로젝트 우수상의 감동

2019년 복현유사 결과공유회를 돌아보다

마을미래팀
하경진, 김동필, 민두리 기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활 문화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부터 '내 마음은 콩밭' 협동조합이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이를 활용하여 원활한 공동체 연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9년 5월 초,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김은운 복현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과 스토리 디렉터이자 심재신 현 마을지킴이 책임강사와 함께 지원사업의 방향을 놓고서 논의를 하던 중 복현동의 근대사 기록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차후 일명 '복현유사' 프로젝트를 기획되었다. 작년 7월 초, 김은운 센터장은 당시 주민협의체 대표와 의견을 나눈 뒤, 복현유사를 편찬하기로 최종 결론지었고, 8월 초부터 주민 참여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 짓기를 비롯한 몇몇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복현유사 프로젝트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복현유사 편찬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과 청년의 만남의 자리, 주민의 기억을 청년이 기록하는 이야기 발굴 단계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집필이 이루어졌다.
2019년 9월 28일, 복현유사 프로젝트의 결과공유회가 개최되었으며, 2019년 12월, 복현유사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구와 시 단위에서 검토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전국 도시재생 우수사례 3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20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열린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였고, 지난 10월 16일, 사업화 부문 우수상의 영광을 품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

하기에 짧고도 힘이 들었던 기간이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지원센터 구성원의 노력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인력의 노력으로 '복현유사' 라는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온 주민들의 생애사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니 감동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발표자로 참가했던 김은운 센터장은 "복현유사 우수상의 주역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자신의 세월을 들려준 주민 분들과 이를 이야기로써 기록하고, 다듬어주시는 청년들입니다.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라고 하며 소감을 전했다.



주민이 주민이 된다

마을신문을 만들며



북현1동 마을신문, 들샘소식지 제2호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그 옛날 물이 귀했던 시절,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북현동의 <들샘>처럼, 지금은 물을 구하기 쉽지만 이웃간의 정과 세대간의 격차로 메말라가는 북현1동의 들샘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시작한 북현1동 마을신문 들샘소식지. 창간호에 이어 들샘소식지 제2호가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한다.



11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간단한 근황 공유와 취재 소재에 따른 팀을 구성했다. 북현1동 주민협의체 총무 역할을 맡으면서 들샘소식지의 기획총괄을 담당하는 하경진 편집위원장을 필두로 민두리, 김동필 기자로 구성된 마을미래팀은 마을의 과거 - 현재 - 미래에 관한 소식들을 담아 내려고 한다. 북현1동의 다양한 정주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들샘환경팀은 배재근, 백명숙, 장상근 기자로 구성되어있다. 또 청년기자들로 구성된 어바니케이터(urbanicator)팀은 도시(Urban)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Communicator)이라는 의미로 지난 창간호에도 함께한 김민정, 김민규 기자가 함께했다. 영상으로 마을소식을 전하는 김태호 영상보도국장이 이번 제2호에도 영상을 통해 소식을 전한다.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취재계획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어떤 소재를 취재하고 기사를 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미래팀은 이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박람회에서 수상한 '북현유사'를 비롯 북현1동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주민 입장에서 보도해보고자 한다. 들샘환경팀은 장미공원의 반려동물 배설물 문제, 경북대학교 부근 주차장의 폐기물 문제, 북현중합시장상가의 노후로 생긴 누수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공유했다. 어바니케이터팀은 창간호에 이어 건강정보를 비롯해 청년세대들이 관심있게 보는 MBTI(성격유형검사)를 색깔로 확인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기사를 쓰는 방향으로 조율했다. 이렇게 각 팀의 취재계획이 정해지고 센터에서는 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알려준 뒤, 2주간의 취재 및 기사 작성 활동 시간을 가졌다.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세 번째 워크숍에서는 활동보고서와 작성한 기사, 촬영한 사진을 함께 읽고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잘했다', '고생했다'라는 칭찬도 있었지만 들샘소식지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취재 내용이 진실인지,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고 문장에 어색함이 없는지 날카로운 지적과 따뜻한 조언이 이어졌다. 마을기자단 및 취재원 모집을 위한 마을소식함의 설치 위치와 담당자도 정하여 들샘소식지에 필요한 다양한 소식들을 담아내기로 했다. 워크숍 이후 정리된 기사들을 취합하여 하경진 편집위원장과 센터, 진행 강사가 함께 지면 구성에 대해 논의한 뒤 들샘소식지 원고 디자인 작업으로 이행되었다.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네 번째 워크숍은 창간호에 이어 이번에도 디자인을 맡은 '디자인농업'의 2호 초안을 함께 보고 최종적인 수정 및 교정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샘소식지를 읽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포 전략과 2020년 들샘소식지의 2021년 들샘소식지가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들샘소식지는 센터 직원이나 강사 혹은 대학생이 만들지 않았다. 북현1동 주민들이 기자가 되어 직접 현장과 사람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쓰고 만들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주민이 주도한다.

북현1동 마을신문 : 들샘소식지를 만드는 주민기자들은, 단순히 동네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주민(住民) 이상으로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나누는 <주민의식>이 담긴 주민(主民)이 되어가고 있었다. 또 겨울이 왔고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더욱 움크리기 쉬운 시기이다. 그러나 이번엔 만들어진 들샘소식지 제2호를 통해 북현1동에 온기와 활력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심재신

2020 북현1동 마을기자단 사소함 진행 강사

3고^{三苦}에서 해방되는 행복한 북현1동 만들기

Urbanicator팀 김민정 기자



3고란 노후를 편히 보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조건인 '가난, 질병, 외로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현1동의 노년 세대 중 3고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명 '화백(화려한 백수)'이 과연 많을까요? 지금부터 화백이 되어서 노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 있습니다. 또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잡곡이나 채소, 과일과 같은 건강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하며 소금(나트륨)을 줄여야 합니다.

당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밀가루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의 섭취를 자제해야 하며, 평소 잡곡밥, 과채류 등 당뇨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중간 강도로 두 시간 정도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 좋다고 합니다. 활기차게 걷거나, 테니스 치기 등의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하여,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펴지 걷기, 수영 등 물속에서 하는 운동, 고정식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이 추천됩니다. 또한,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쪼그려 앉기, 무거운 것 들기 등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면서 오히려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운동이나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노인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노년 세대의 3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장미공원 한바퀴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먹고, 마실 땀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마스크 쓰GO 운동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로 강화

▶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부과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타벅스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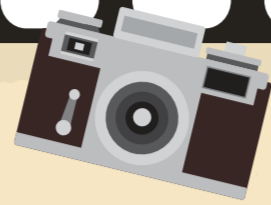
학원 등 고위험시설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전면적 면회 금지

#함께해요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출처 대구시청 공식 홈페이지

북현타작(他作) & 문전성시 공동기획 사진전시회 북현1동 마을기억 사진전 『만다고 문을 찍노展』



사진전시회 기간 2020. 11. 19.(목)~11.21.(토) 3일간
사진전시회 장소 북현동 장미공원
참가팀 북현1동 「북현타작」 & 「문전성시」 청년프로젝트팀

2020년 11월 19일 ~ 11월 21일 3일간 북현동 장미공원에서 '북현1동 대문사진전시회-만다고 문을 찍노展'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는 북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탄생할 피란민촌의 삶과 정체성,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청년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교류를 촉진하고자 북현1동 「북현타작」과 외부 청년단체 「문전성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사진전시회이다.

사진전에 참가한 문전성시(대표 지민준)는 지난해 북현1동 청년소셜리빙랩 1기에 참가하면서 북현1동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재탄생할 피란민촌에 대한 기록에 동참하고자 2020년 9월 4일 청주문화도시조성사업(다음세대를 위한 기록 프로젝트)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북현1동 피란민촌 기억 사진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북현1동 피란민촌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기억하고자 지역 청년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피란민촌 골목 곳곳과 정겨운 '대문'과 '골목풍경'을 지역 청년들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주민들이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문전성시(대표 지민준)는 "몇 년 지나면 달라질 북현1동 피란민촌의 기억을 대문 사진을 통해 젊은 세대들과도 이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번 공동기획 사진전시회에 참가한 북현타작(他作)은 북현1동 도시재생 주민기록화사업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북현타작(他作)은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남기다.'라는 주제로 주민들이 직접 피란민촌의 삶을 사진에 담고 타인의 시각에서 의미를 부여하여 사진과 글로 엮어보는 프로그램이다.

피란민촌이라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온 가족과 이웃의 삶을 '나'가 아닌 '너'의 관점에서 풀어보고 그들의 삶에 녹아있는 사물들과 함께한 기억들을 사진에 담아서 하나의 기록물로 남겨 보는 것이다.

이번 공동기획 '만다고 문을 찍노展' 사진전시회 제목의 탄생은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탄생하였다. 지역 청년들이 골목 곳곳을 찾아다니며 대문과 골목을 찍는 모습을 보고 어느 할머니께서 궁금해서 던진 한마디 '만다고 문을 찍노?'에서 나온 제목이다.

일상적이고 그냥 평범한 한마디, 그리 특별하지 않은 내 가족과 이웃의 삶을 기록이라는 틀에 짜맞추어 보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삶이 아주 값진 기록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진전시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주민들과 청년들이 피란민촌이라는 한 공간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사진전시회를 일회성으로 끝내기가 아쉽다는 주민들과 북구청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북구 주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북구청 중앙현관 로비에서 영원히 남을 피란민촌의 기억 『만다고 문을 찍노展』을 개최할 예정이다.



위험한 학교 앞, 경진초 네거리

들샘환경부 장상근 기자

경진초등학교 입구 앞 네거리는 특히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앞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로 보행하기에 더욱 각별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된 구간은 주로 접촉사고가 빈번하며, 이전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은 물론이며 북현동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대한 과속 단속카메라 및 속도감지기 설치, 표지판 부착 등의 조치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스쿨존 운전자 안전수칙

1. 스쿨존에서 항상 서행하기
2.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기
3. 스쿨존 내 주차는 안돼요
4.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 주의하기
5.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면 안돼요

출처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보호자 안전수칙

1. 안전한 보행 방법 지도하기
2. 자전거, 킥보드 탈 때 보호대 착용시키기
3. 어린이 옷, 가방은 눈에 잘 띄는 밝은색으로
4. 어린이 우산은 밝은색이나 투명우산으로
5.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출처 도로교통공단



들샘 만평





함께 만들어요, 깨끗한 복현1동

복현1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터입니다.
'나 하나 썩이야'하며 버린 쓰레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복현1동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복현1동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앞장섭시다.

복현 장미공원은 강아지 화장실이 아닙니다!

장미공원은 복현 1동의 녹지공간이자,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주민들은 운동을 하기도 하며, 이웃들과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용 시간대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만큼 매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미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공간보다는 반려동물들의 '화장실'이 된 것 같습니다. 견주들은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오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반려견의 대소변을 장미공원



곳곳에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반려견을 데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반려견의 배설물은 주민들이 쉬는 공원의 곳곳에 방치된다는 의미입니다. 장미공원의 청결하고도 지속적인 이용 및 유지를 위해서 먼저 견주들이 반려견을 사랑하는만큼 장미공원도 아끼고 사랑했으면 하는 점, 그리고 행정에서도 청결 캠페인이나 단속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장미공원을 위해 노력합시다.



즉차장은 쓰레기장미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측에서 마을에 무상으로 용지를 제공 해준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 주민들이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적 공간에 몰래 내다버린 건축 폐기물이 많습니다.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이 인테리어 및 가택수리를 하고난 뒤 발생한 폐기물들을 주차장에 투기한 것입니다. 폐기물 투기를 손 놓고 방치하게



되면 주차장 이용 불편은 물론이며 마을 환경 자체에 대한 불쾌감을 주고 복현1동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인근 주민들에 대해 가택수리 폐기물을 조치하는 방법이나 불법투기 단속조치 등을 통해 보다 깨끗한 마을 환경에 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샘환경부 배재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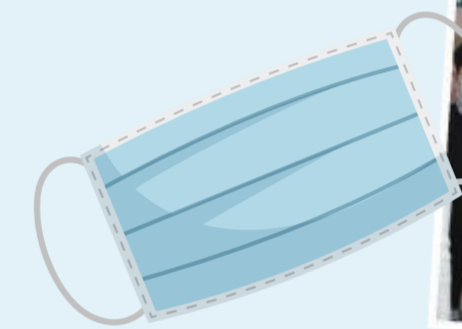
피란민촌 세대공감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지역청년과 나눔의 인연을 이어가다.



복현1동 피란민촌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지역 대학생 NGO단체 유니에즈에서 '피란민촌 세대공감 코로나19 극복 피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젝트 참여단체 유니에즈(대표 서종정)는 지난해 11월 복현1동 청년소셜리빙랩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으로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며,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공헌'과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대학생 NGO단체다.



청년봉사단 유니에즈 서종정 대표는 "2019년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2020년 세대 공감 36.5 (단열재시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피란민촌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으며 언제라고 기회가 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고싶었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주민분들과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복현1동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싶다."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 청년봉사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복현1동 피란민촌에 대해 알아가고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삭막한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지역청년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피란민촌 세대공감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로 지역청년들과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올해 2번째의 인연이 또다른 프로젝트로 3번째의 연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유니에즈의 이번 프로젝트 추진은 지난해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세대공감 36.5」(피란민촌 취약계층 단열 에어캡 시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작업 내내 '고맙다, 애쓰다' 하시면서 두 손을 녹여주시고 안아주시던 피란민촌 어르신들과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유니에즈 청년봉사단체는 코로나 예방에 힘이 되고자 대구시에서 주최한

'2020 대구x청년소셜리빙랩(생활실험실)'에 선정되어, 올해 10월에 2차리에 걸쳐 주민협의체 임원 및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손소독제 제조와 마스크걸이 제작을 실시하였고, 지역 청년 봉사자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피란민촌 어르신들을 위하여 손소독제과 마스크 걸이 60세트를 추가 제작하여 2020년 11월 23일 60여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였다.



지역 청년 봉사자들이 손소독제와 마스크걸이를 전달하는 모습

북현종합상가, 무너져야만 들여다 볼 셈인가.

들샘환경부 백명숙 기자

올해 10월 초순 새벽 2시경, 북현종합시장의 노후된 수도배관이 파손되면서 급히 주민 및 상가 입주민들이 나와 대처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의 긴급 출동까지 요청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북현종합시장 재건축조합 안병우 총무는 수도배관의 파손이 동반되면서 상가 입주민들의 점포가 침수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내내 물을 퍼내야만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관련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배관 파손과 함께 전기설비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상가들은 누전을 겪는 등 영업에도 크나큰 손실이 있었으며, 고여있는 물로 인한 악취 때문에 상가 및 인근 주민들은 고역을 치렀다.

이번 사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재건축 및 유관기관의 안일한 대응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시각을 다투는 일임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관련 부처 및 기관은 신속하고도 철저히 대응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북현의 일꾼 1호,
하경진 총무님께 묻다.
북현 전설을 찾아서 김태호 기자

북현1동 주민협의체 하경진 총무님께 북현1동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물음과 북현동에서 살아오신 소중한 이야기 및 봉사활동에 관해 취재해 보았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활동하시는 하경진 선생님**
물자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기사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문화단체로 발돋움하는 까치풍물단~

마을미래팀
하경진, 김동필, 민두리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에 '까치풍물단'이라는 명칭으로 동아리단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적격 심사를 정식적으로 통과하면서 마을 주민 17명 가량 초보자가 중심이 된 동아리단이 최종 구성되었다.

현재 까치풍물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신천동에 위치한 국악전문 공연단의 연습실에서 풍물 강습을 교육받고 있다. 팽과리, 장구, 북을 연주 종목으로 하고 있으며, 단원들은 동아리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개개인의 사비를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풍물단을 유지하려는 열정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2월 중순부터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자체적인 연습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징, 소고 등의 연주종목을 추가하고, 상모돌리기 실습계획도 있을 예정이다. 까치풍물단의 하경진 단장은 마중물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풍물동아리단 운영을 지속시켜나갈 계획이며 우리 마을에는 마땅한 문화활동 공간이나 활동단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까치풍물단이 향후 전통풍물(매구) 계승과 더불어

마을의 문화단체로 활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마을의 대·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민들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까치풍물단은 마을 주민들 중에서 풍물에 관심이 있으며, 단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민이라면 향시 환영하고 있다. 마을의 대표적인 문화단체로 거듭날 까치풍물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복잡소, 어울림마당, 어울림센터 진행과정 (1)

마을미래팀
하경진, 김동필
민두리 기자



마을미래팀은 북현1동 도시재생 사업을 주민의 관점에서 보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복잡소와 어울림센터 어울림마당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광역자치단체(대구), 기초자치단체(대구 북구)의 예산을 받아 실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1월 시작하여 2021년말쯤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 10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북현1동 경대로19길과 23길의 일부 한정된 구간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특히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복잡소, 어울림센터의 건물과 어울림마당 및 소규모 주차장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복잡소와 어울림마당은 20년 6월쯤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나 어울림센터 토지는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울림마당이 들어설 위치에 주택이 철거되고 안전판 설치 작업이 시작되니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설명회가 19년 1월에 제1차로 있었고 6월에 장미공원 축제를 활용한 홍보, 같은 해 8월 제2차 설명회와 아울러 현수막 설치,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알고 관심을 가지기에는 홍보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미래팀은 내년 초부터 건축공사 예정인 복잡소, 어울림센터, 어울림마당의 진행과정을 앞으로 들샘소식지 매호마다 주민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고 복잡소와 어울림센터가 과연 이름대로 그 역할을 해낼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 많은 주민의 관심과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격유형 TEST

Urbanicator팀 김만규 기자

최근 20대들 사이에서 '너 MBTI가 뭐야?'라는 말이 인사말이 될 정도로 성격 유형 테스트는 뜨거운 감자이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MBTI', 'SPTI', '꽃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테스트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대체 20대들은 왜 성격 유형 테스트에 열광하는 것일까?

20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몇가지 있다. 바로 #자기PR, #마이싸이다, #소피커와 같은 키워드이다. 키워드는 20대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취향과 성향 등을 존중하자는 움직임인 2세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성격 유형 테스트는 5분 이내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 결과로 자기 스스로를 한층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20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또래와 결과를 공유하며 유대감과 재미를 얻어 갈 수 있음에 흥미로워 한다.

20대들 사이에서 뜨거운 '성격 유형 테스트' 복현동 주민들도 같이 해보아요!

끌리는 색깔 4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세요!



첫번째로 선택한 색 : 나조차 모르고 있었던 잠재적 성격

- 빨강** 활력이 넘치고 독창성이 뛰어난 사람, 승부욕이 강해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며 한번 결심하면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큰 편
- 주황**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쾌활한 편이지만 모험을 좋아하지는 않아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
- 노랑** 소극적이지만 정신력이 강하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 온화하고 침착한 성격이지만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
- 파랑** 차가워 보이긴 하나 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낯을 많이 가리지만 다정하고 의외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
- 흰색** 부드럽고 예민하며 감성적인 몽상가 스타일을 가진 사람, 감정 표현이 풍부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 보라**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개성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무언가에 꽂히면 파고드는 성격이지만 다소 변덕스러운 경향이 있다
- 초록** 리더십이 강하고 매사에 신중하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행동이 직설적이고 시원시원한 편

두번째로 선택한 색 : 이제까지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 빨강** 지나치게 계산적이어서 역효과가 나며, 현실주의적인 성격이 있어 본인의 재능과 매력을 가로막는 편
- 주황**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강한 의타심이 있는 편
- 노랑** 깊은 생각과 고민이 장애물이 되고, 사소한 문제에도 심각하게 반응하여 시간 낭비를 하는 편
- 파랑** 지나치게 남의 일에 앞장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편
- 흰색** 자신도 모르게 어리광을 부리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가 미움을 사는 일이 잦은 편
- 보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마음대로 안되는 일이 많은 편
- 초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많고 계획을 세우기 보다 몰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편

세번째로 선택한 색 : 현재 나의 모습과 감정 상태 알아보기

- 빨강** 매사에 의욕이 넘치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
- 주황** 합리적이고 냉정한 사고로 매사에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자신의 욕망을 잘 컨트롤 할 줄 아는 상태
- 노랑**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명하게 생각하여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태
- 파랑**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
- 흰색**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아 또 실패할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상태
- 보라**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에도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 소모를 하는 상태
- 초록** 무슨 일이든 적당히 하고자 하고, 도전적이거나 무리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기피하는 상태

네번째로 선택한 색 : 앞으로의 미래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팁 알아보기

- 빨강** 남들이 꺼려 하는 일에 도전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면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데 도움
- 주황** 그날 기분에 따라 컨디션의 영향을 받기 쉬우니 감정 조절에 주의를 기울이고 컨디션을 조절할 것
- 노랑** 어디서든 뛰어난 적응력으로 자신의 개성을 발휘 할 수 있음
- 파랑** 새로운 분야에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취미가 생길 수도 있음
- 흰색** 나를 리드해줄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 보라** 상상력과 독창성이 향상되고 타인과 협업하면 더욱 큰 성과를 누릴 수 있음
- 초록** 지나치게 침착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가끔은 부딪혀 볼 것

하반기 북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열심히 달려온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후문입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이현민 기자

3기 북현1동 도시재생 마을대학 '사회적 경제 실습 워크숍'

- 10.14.~11.11. 5주 과정 / 주민 20명 수료

어느덧 북현1동 마을대학이 3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 기초 교육과 실습형 워크숍을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마을 공동체 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적용하기 위함이었답니다. 한방 삼푸 및 장미 화장품 만들기, 꽃차 체험, 에코백, 실크스크린, 도시농업 체험 등의 실습을 이어가니 훨씬 더 생동감있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번 마을대학에 참여한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화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다들 만족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마을대학은 내년에 더 새롭고 주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북현타작(他作) 사진 아카데미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10.20.~12.23. 6주과정(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 현숙경 작가 외 주민 등 11명 참여



북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개선사업으로 새로이 탈바꿈 할 피란민촌의 삶과 정체성, 역사성에 대한 기록물 생성 및 보존을 위하여 2020년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북현타작(他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북현타작(他作)은 피란민촌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에 대한 기억, 가족간의 이야기 그리고 이웃들의 삶을 주민이 직접 사진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시각에서 느낀점을 짧은 글로 엮어 포토에세이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북현타작(他作)의 첫 도전으로 2020.11.19.(목) 장미공원에서 북현타작&문전성시 공동기획 사진 전시회 『만다고 문을 찍노展』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1월 북구청 로비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피란민촌의 옛 모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옷을 입은 주거지가 형성이 되겠지만 옛 추억을 하나의 사진과 글로 영원히 기억되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공모사업 및 마을동아리 지원사업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10.22.~12.22. 2개월 / 북현1동 뉴딜사업지 일원
- 최종 마을동아리 3팀, 주민제안 공모사업 3팀 선정

자신의 손으로 직접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보거나, 평소 선호하던 취미나 소양을 발전시켜 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고 싶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까치풍물단, 은빛봉사단의 반찬 나눔, 북현살롱의 이·미용 봉사, 배워서남주자팀의 주민강사 육성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을 두 달간 이어갔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 간에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공모사업

배서남 : 배워서남주자



북현살롱 : 이·미용 봉사



마을동아리 지원사업

까치풍물단



은빛봉사단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북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한 벤치마킹’

- 11.10. 진행 / 영주시 일원 / 강순덕 대표 외 30명 참여

주민협의체는 향후 북현1동 도시재생사업에 벤치마킹을 하고자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를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영주문화파출소에 도착하여 영주시 도시재생에 관한 강좌를 듣고, 도시재생 성공 사례인 영주 중앙시장과 구성마을을 견학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구성마을 할매목공장 할머니들의 열성적인 모습과 그들의 사업과정들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듣고 뉴딜사업 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등 열의가 대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힘으로 변화할 북현1동에 대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0 북현유사 성과 공유회

‘우수상의 주인공들과 함께’

- 12.16. 진행 / 청년편찬자대표·관계자 20명 참여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기사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에 빛나는 주인공들이 영광을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현유사 성과공유회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소수의 관계자를 초대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구술자분들께 가가호호 방문하여 감사패와 선물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꺼이 나눠주신 어르신 구술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받으시는 분마다 고맙다며 선뜻 차를 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성과공유회는 청년 편찬자와 어르신 구술자가 직접 모일 수는 없어 아쉬웠으나 영상을 통해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뜻깊은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청년편찬자가 대표로 자신의 감상을 말하기도 하고, 북현유사에서 창작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실감나는 낭독극과 생동감 넘치는 인형극을 진행하였습니다. 북현유사는 이야기책 제작에 그치지 않고 스토리 자원으로 활용하여 공연, 굿즈 제작 등 지역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2020 북현유사 성과공유회를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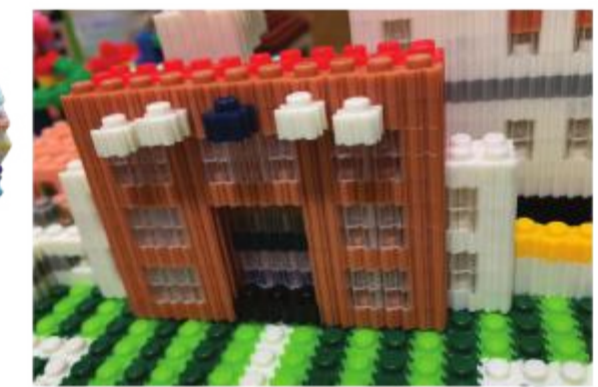
영남대 링크사업단의 마을 현장 실습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강의를 통해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이 지역사회, 산업체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이 북현1동에도 찾아왔습니다. 청년들은 특독 튀는 아이디어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하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향후 이를 활용하여 북현1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북현동 뒷골목 해바라기조

팀원 : 서석현 안성준 박현진



청년들의시점으로 북현1동의 모습을 미니블록으로 제작하고 또래 청년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모형 지도를 만들어냄

북현동 기억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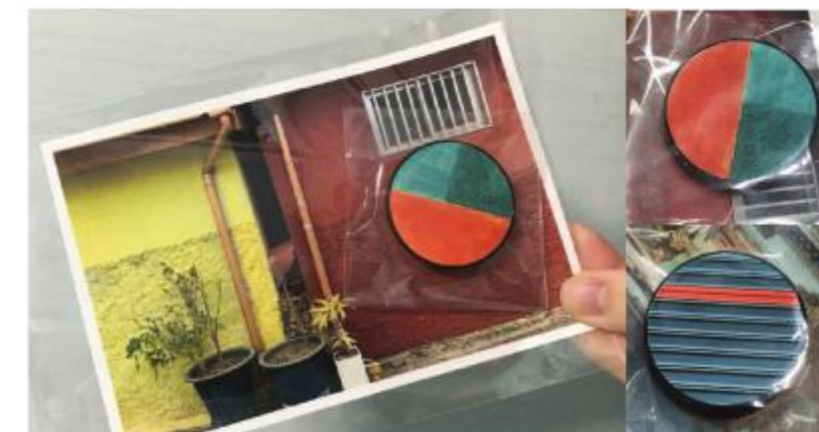
팀원: 정현지,윤설빈,박상현

안내 팸플릿 제작을 통해 청년들이 북현동을 왔을 때 도움을 주고, 변화할 북현1동의 역사를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함



피란민촌 영원하조

팀원 : 시아현, 이석규, 김채은



피란민촌 골목길 사진을 배경으로 주민이 청년에게 바라는 메시지를 첨부하여 엽서제작을 하고, 그림책을 제작하여 피란민촌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주민과 청년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





지역초등학생과 청년이 함께 꿈꾸는 프로그램 '우리가 꿈꾸는 복현마을'

- 11.28.(토) ~ 12. 19.(토) 4주과정 (스케치, 코딩, 현장실습, 3D 프린팅 채색작업) / 지역초등학생 7명과 청년봉사자 10여명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거듭날 지역 청년들과 복현1동 초등학생들이 4차 산업 교육을 통해 교류하고 성장하는 청년학습네트워크-'우리가 꿈꾸는 복현마을'을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딩과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체험과 도시재생을 접목시킨 창의예술교육으로, 우선 초등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일깨워 미래 사회 인재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청년을 학생들의 멘토로 두어 청년-학생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동시 성장하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 진행 방식은 초등학생과 청년봉사자가 한 조를 이루어 초등학생들이 바라고 상상하는 마을지도를 스케치 하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코딩 작업을 하여 3D프린팅으로 실제 모델을 만들어보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우리가 꿈꾸는 복현마을'을 통해 어른세대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복현1동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생활수칙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 19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30초 손씻기와 손 소독 자주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집회·모임·회식 자제 하기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신분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연락바랍니다. 대구 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락처: 053-665-2756 / 대구 북구 성북로 49



북현동 인근 병원 사람이 살다보면 갑자기 아플 때가 한번씩 생기죠? 꼭 알아두세요!



대구 파티마병원(종합병원) 053-940-7114 / 24시간

대구시티병원(종합병원) 053-959-7114 / 24시간

든든한병원(신경,정형 전문) 053-940-3000 / 평일 09:00 ~ 17:30, 토요일 09:00 ~ 13:00, 일요일 공휴일 휴진

늘사랑약국(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10) 053-951-4565 / 평일 08:00 ~ 19:00, 토요일 08:00 ~ 18:00, 일요일 15:30 ~ 20:00

새건강약국(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78) 053-951-3744 / 평일 09:00 ~ 13:00, 토요일 09:00 ~ 21:00



잠시 쉬어가볼까요?

북현주민들은 요즘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오저씨** 오빠와 아저씨의 중간, 아저씨가 되기 전 애매한 나이대를 칭하는 것
-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 찌죽찌** 찌죽어도 따뜻한 물에 샤워, '열죽아'와 비슷한 느낌
- 빵귀** 최근 유행하는 카페투어로 인해 생긴 단어로, 빵과 커피의 줄임말이다
- 갑통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뛰어야겠다
-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의 줄임말
- 고스팅** 갑자기 연락이 끊겨 잠수를 타는 행위를 말한다
-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으로, 경제난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주 쓰인다



피란민촌을 기록하다! 기억하다!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 (피란민촌 기록화) 사업 진행

지역의 사라져가는 역사 흔적, 마을 모습, 우리들의 추억이야기에 아쉬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라지게 될 피란민촌의 삶과 추억을 기록하고 기록된 이야기를 새로운 미래가치로 재탄생 시키는 기록화사업을 진행합니다.

수집기간 2020년 ~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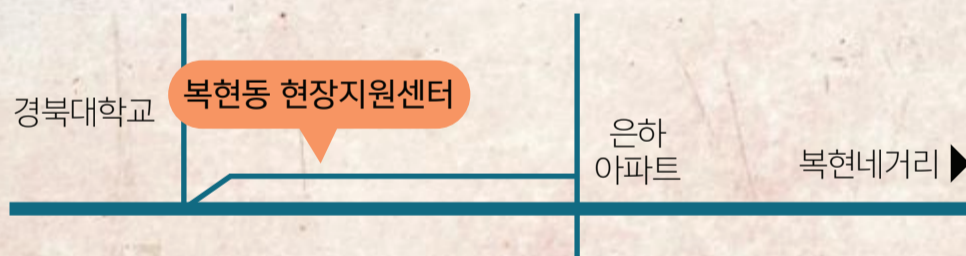
- 수집내용**
- ① 개인 및 가족사진 (가족 및 이웃 인물사진, 돌, 환갑, 생일잔치, 집안행사 사진 등)
 - ② 마을행사사진(소풍, 운동회, 졸업앨범, 마을잔치 등)
 - ③ 피란민촌 경관 사진(골목길, 집, 화분, 대문 등)
 - ④ 마을관련 기록물(관보, 반상회보, 회의록, 일지, 전단지, 안내문 등)

참여방법 해당 자료를 소장하신 분은 아래의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연락 및 방문 부탁드립니다.

참여혜택 소정의 기념품 제공

문의 및 접수처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53-939-3550

오시는 길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9길 13, 2층 (복현1동 617-38)
T. 053-939-3550 F. 053-939-3551



※ 보내주신 사진 및 기록물은 스캔 후 다시 돌려드리며, 피란민촌 기록화사업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함께 만드는 들샘소식지 참여방법



1 <마을소식함>에
제보해주세요!



2 마을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복현의 나날을 함께
기록해나갈 분을 찾습니다.
분야 마을 기록, 사진·영상 등



3 원고와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들샘소식지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